

## 지역 소식통

부안군, 신활력 액션그룹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부안군 제1기 신활력 액션그룹이 지역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 까지 2일간 하서면 청호리 청호수마을에서 제1기 신활력 액션그룹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신활력 액션그룹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안군 농업·농촌 신활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과 오는 3월 진행되는 신활력 텃밭학교 2기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워크숍은 정우중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사무국장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액션그룹 교육에 대한 보고와 함께 우수그룹 시상·수료증 수여식, 친목 모임을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등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아·태 마스터스 대회 특별 위생점검 나서

정읍시가 2023년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맞아 지역 내 다종 이용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시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기간(5.12 ~ 5.20) 정읍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9일간 위생점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안전한 외식·숙박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 등 선진 위생문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협동으로 3개 반 7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선수들이 주로 이용할 숙박업소 11개소와 대표음식점 65개소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

미세먼지 감축 사업 141억 원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매연저감장치 지원

정읍시가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과 괘적인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4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510대)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승용 250대, 화물 315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2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78대) 사업 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는 최대 1,9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3월 2일

부터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를 통해

금 경유차와 노후 자제차, 굴착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가입율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신청은 27일부터 정읍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 승용·화물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반기 395대, 하반기 17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는 최대 1,900만 원까지 차종별 차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3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LPG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시민에게 1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민에게는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사업 희망자는 각각 6월과 13일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생활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괘적인 대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농가 경영비 부담 도움 되길"

정읍시, 무기질비료 구입비 '총 44억 원' 농가 지원

정읍시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수급 안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와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된다.

다면 최근 3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신규 진입 농업인이나 직무전환, 재배 면적 확대 농업인 등은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

고창군이 올해 1급 벌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축축률 380(주택+비주택+지붕기양 포함)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창군은 올해 13억 3720만 원을 확보해 주택 200동, 비주택 20동의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52만 원에서 대폭 상향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가구'로 분류돼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창고와 축사 건축물의 경우 200㎡ 이하의 일 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군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50동에 대해서는 개량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정물량 달성 후 남은 예산으로는 보관 슬레이트의 운반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신청은 3월 10일 까지 건축물 소재지 음·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보건소, 시민 건강 교실 확대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어르신 건강 활력을 위한 시민건강증진 신체 운동 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시민건강증진 신체 운동 교실은 바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의 삶의 힘을 되찾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체조와 리인댄스, 요가, 낫타, 장구, 기공체조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말까지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각 경로당과 복지관, 체육관 등 152



개 생활체에서 진행되며, 종목별 주 2회 1시간씩(프로그램 운영시간 단위) 운영)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지역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